
 금융위원회	<h1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보 도 자 료</h1>				 금융감독원
	보도	2017.10.27.(금) 09시 30분 이후	배포	2017.10.27(금)	
책 임 자	금융위 금융정책과장 이 형 주(02-2100-2830)	담 당 자	이 인 옥 서기관 (02-2100-2831) 윤 덕 기 사무관 (02-2100-2835) 이 은 진 사무관 (02-2100-2836)		
	금감원 은행감독국장 민 병 진(02-3145-8020) 금감원 일반은행국장 김 철 웅(02-3145-7050)		홍 석 린 팀장 (02-3145-8040) 박 상 원 팀장 (02-3145-7090)		

제 목 :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, 「은행권 가계대출 동향 점검회의」 개최

1. 회의 개요

- 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은 10.27(금) 09시30분부터 「은행권 가계대출 동향 점검회의」를 개최하여
- 최근 가계대출 변동 추이 및 대출금리 동향 등을 점검하고, 시중은행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

< 은행권 가계대출 동향 점검회의 개요 >

- (일시/ 장소) '17.10.27(금) 09:30~10:30 / 은행연합회 중회의실(14층)
- (참석) 총 25명
 - 금융위 부위원장(주재), 금정국장, 금정과장
 - 금감원 부원장, 은행감독국장, 일반은행국장, 특수은행국장
 - 은행연합회, 시중은행 여신담당 부행장

2. 주요 당부사항

- 김용범 부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금년 들어 정부 대책의 시행효과, 금융권의 관리 노력 강화로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다소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며,

* 가계대출 증가규모(1~9월, 조원) :('15) +73.3, ('16) +84.9, ('17) +64.6

- 10.24일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언급

- 특히, 최근 선진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등 본격적인 금리인상 기조 국면에 따라 금리변동에 취약한 차주의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커졌다는 점을 강조하며, 다음의 3가지 사항을 당부

- ① 은행 직원들이 상담과정에서 고객에게 보다 유리한 고정금리 대출 상품을 권유할 수 있도록 일선 현장까지 관리

- 향후, 금감원이 창구에서 과도한 고정금리 대출 축소가 발생하지 않는지를 집중 점검할 예정

- ② 지난 4월 개정된 대출금리체계 모범기준에 따라 가산금리 등 대출금리를 합리적으로 산정하여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은 자제하고, 고객에 대한 충분한 설명 제공

- 금감원이 대출금리체계 모범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고, 금리상승 압력이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가산금리 등 대출금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예정

- ③ 대출 과정에서 취약차주에 대해 구속성 예금, 카드 판매 등 불공정한 끼워팔기 영업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일선 창구까지 철저하게 관리

- 적발시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 조치할 예정

- 김용범 부위원장은 금융권이 고객과 동반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는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동참을 당부
- 박세춘 금감원 부원장은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가계대출 관리계획의 성실한 이행을 당부하며, 주담대 회피를 위한 편법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은행들의 각별한 주의를 촉구
 - 또한, 합리적 이유없이 가산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큰 사회적 비난에 직면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, 은행들의 대출금리 산정 체계에 대한 금감원의 지속적 점검의지를 강조

3. 향후 계획

- 관계부처, 금융권 등과 함께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고,
 - 금리상승 국면에서 서민·자영업자 등 취약부문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다양한 정책적 노력*을 강화

*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 확대('17년 7조원), 법상 최고금리 인하, 취약차주 사전 연체 방지방안(실직·폐업 등의 경우 최대 3년 상환유예), 연체가산금리 산정체계 합리적 개편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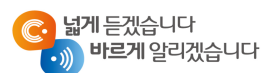
- 금융권의 대출취급 적정성, 불합리한 대출금리 산정, 불공정한 영업행태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여 엄중하게 제재

* 주요 은행 대출취급 적정성에 대한 현장검사 실시(10.23~)
 * 2금융권 개인사업자 대출 점검(11월중)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
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 변 인
prfsc@korea.kr



□ (개 요) 은행연합회는 대출금리 산정체계의 합리성 및 비교가능성 제고를 위해 『대출금리 모범규준』을 개정('17.4.14.)

- 또한, 은행별 상품 공시를 위한 『은행상품 통일공시기준』內 '대출금리 공시지침'을 신설

[주요 개정내용]

❶ 가산금리 조정의 절차적 합리성 강화

- 가산금리 인상시 내부심사위원회에서 합리성과 타당성을 심사하도록 의무화하고 내부통제기준에 금리산정체계의 합리성에 대한 검증절차 및 가산금리 변동에 대한 점검절차 신설 등

❷ 목표이익률 산정 기준 설정

- 시장금리 상승 하에서 대출금리 산정과정의 투명하지 않아 과도한 대출금리가 부과되지 않도록 경영목표 등을 감안하여 목표이익률이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책정토록 규정

❸ 공시기준 신설을 통한 비교가능성 제고

- 은행간 대출금리 비교가능성 제고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은행권 공통으로 정한 대출금리 산출기준에 따라 최고·최저금리를 공시하도록 개선

(개선사례 예시)

종 전	개선 후											
<div>[대출금리]</div> <div>- 최고금리: 4.XX%</div> <div>- 최저금리: 3.XX%</div>	<div>[대출금리]</div> <div>▶ 산출기준: 잔액기준 COFIX 기준, 고정금리, 아파트 담보, 신용 등급 3등급, 만기 30년, 비거치식·분할상환방식, 대출금액 2억원</div> <table><tr><th>기준금리 (A)</th><th>가산금리 (B)</th><th>우대금리 (C)</th><th>최종금리 (A+B-C)</th></tr><tr><td>1.XX%</td><td>2.XX%</td><td>최고 1.XX%</td><td>3.XX%~4.XX%</td></tr></table>				기준금리 (A)	가산금리 (B)	우대금리 (C)	최종금리 (A+B-C)	1.XX%	2.XX%	최고 1.XX%	3.XX%~4.XX%
기준금리 (A)	가산금리 (B)	우대금리 (C)	최종금리 (A+B-C)									
1.XX%	2.XX%	최고 1.XX%	3.XX%~4.XX%									